

一千五十萬 밀원심기 행사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에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조상근과 강원관내 조합원, 한국양봉농협 직원들을 합쳐 약 50여명이 참가하여 밀원식재 행사를 할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한파가 와서 땅이 얼어 밀원심기 행사는 하지 못하고 밀원수 배부 행사만을 가졌으며, 11월 26일 토요일에 전북관내 조합원, 한국양봉농협 직원들을 합쳐 약 50여명이 참가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송정공원에 헛개나무 600여주 및 수유나무 1,000여주를 식재 하였으며, 밀원수도 8,000여주를 배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국토의 공한지를 밀원화 하려는 취지로 한국양봉농협에서는 2000년부터 밀원심기 10개년을 운동을 펼쳐오고 있어 그 일환으로 매년 밀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04년 부터는 일천오십만 밀원심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양봉농협에서는 올해 중앙회로부터 밀원수 구입 비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금액 1억 5,000만원으로 밀원수를 240,000그루 정도를 구매하여 전국일원에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2억원을 배정하여 매년 30만 그루씩의 밀원수를 공급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밀원수 식재 행사를 기회로 하여 양봉인들 스스로 내가 필요한 밀원수는 내가 심어야겠다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이 나무들이 자라면 아까시나무 하나에 의존하던 양봉산업을 탈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된다.



2005. 11. 19일 一千五十萬 밀원수 행사 모습 (강원도)



2005. 11. 26일 一千五十萬 밀원수 행사 모습 (전북 부안군 행안면)

